



Global Story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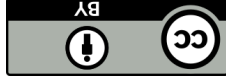
globalstorybooks.net

윤나래 아이 / Donkey Child

Lindiwe Matshikiza ✎

Meghan Judge &

Michelle Kim (ko) 📄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윤나래 아이

Donkey Child



Lindiwe Matshikiza ✎

Meghan Judge &

Michelle Kim 📄

3 ||

한국어 (ko) / English (en) 🗣️



먼 곳에 이상한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어린 소녀였어요.

...

It was a little girl who first saw the mysterious shape in the distance.

As the shape moved closer, she saw that it was a heavily pregnant woman.

...

그 모습이 가까이 다가올때, 소녀는 그 모습이 임신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소녀는 그 임신한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해야겠다,” 소녀의 마을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펴야해.”

...

Shy but brave, the little girl moved nearer to the woman. “We must keep her with us,” the little girl’s people decided. “We’ll keep her and her child safe.”



당나귀 아이와 그의 엄마는 함께 자랐고, 옆에서 같이 살아갈 많은 방법들을 찾았어요. 천천히, 당나귀 아이와 그의 엄마 주변에 다른 가족들도 곁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

The donkey child and his mother have grown together and found many ways of living side by side. Slowly, all around them, other families have started to settle.



그러나 그들이 그 아기를 보았을때,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당나귀?!”

...

But when they saw the baby, everyone jumped back in shock. “A donkey?!”



당나귀는 드디어 뭐를 해야할지 알았어요.

...

Donkey finally knew what to do.



... 그 구름들은 그 한아버지와 함께 사라졌어요.

...

... the clouds had disappeared along with his friend, the old man.



모두를 닮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와 아기를 안 전하게 보살피겠다고 했어, 그러니 그렇게 하자.”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저들이 룰행을 가지고 롱거야!” 라고 말했어요.

...

Everyone began to argue. “We said we would keep mother and child safe, and that’s what we’ll do,” said some. “But they will bring us bad luck!” said others.



그래서 그 여성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이 이상한 애기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했어요. 그녀는 자기자신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했어요.

...

And so the woman found herself alone again. She wondered what to do with this awkward child. She wondered what to do with herself.



아주 높은 구름들 사이에서 그들은 잠이 들었어요. 당나귀는 그의 어머니가 아파서 그를 부르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당나귀가 잠에서 깨었을때...

...

High up amongst the clouds they fell asleep. Donkey dreamed that his mother was sick and calling to him. And when he woke up...

But finally she had to accept that he was her child and she was his mother.

...

하지만 그녀는 그냥 나귀 새끼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 또한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One morning, the old man asked Donkey to carry him to the top of a mountain.

...

어느 날 아침, 그 할아버지는 당나귀에게 자기를 산 꼭대기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나귀 아이는 무럭 무럭 자라서 더이상 어머니의 등에 얹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에도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자주 피곤하고 속상해 했어요. 가끔씩은 당나귀 아이에게 동물이 해야 할 일을 시키곤 했어요.

...

Now, if the child had stayed that same, small size, everything might have been different. But the donkey child grew and grew until he could no longer fit on his mother's back. And no matter how hard he tried, he could not behave like a human being. His mother was often tired and frustrated. Sometimes she made him do work meant for animals.



당나귀는 그 할아버지 곁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당나귀에게 살아 남는 법들을 배웠어요. 당나귀와 할아버지는 서로 듣고 배웠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왔고, 같이 웃었어요.

...

Donkey went to stay with the old man, who taught him many different ways to survive. Donkey listened and learned, and so did the old man. They helped each other, and they laughed together.

당나귀의 마음속에 헛갈림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그는 이
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되면 안됐고 또 저렇
게 되면 안됐어요. 어느날 당나귀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어요.

...

Confusion and anger built up inside Donkey. He
couldn't do this and he couldn't do that. He
couldn't be like this and he couldn't be like that.
He became so angry that, one day, he kicked his
mother to the ground.



당나귀가 잠에서 깨었을때, 낯선 할아버지가 자기를 내려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그 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나서 는 조금의 희망을 느꼈어요.

...

Donkey woke up to find a strange old man
staring down at him. He looked into the old
man's eyes and started to feel a twinkle of hope.





당나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주 빠르게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

Donkey was filled with shame. He started to run away as far and fast as he could.



당나귀가 뛰는 것을 멈췄을때, 밤이 되었고 당나귀는 길을 잃었어요. “히하?” 그가 어둠에게 속삭이자 “히하?” 하고 에코가 들렸어요. 그는 혼자였어요. 그는 쭈구려서 깊고 슬픈 잠에 들었어요.

...

By the time he stopped running, it was night, and Donkey was lost. “Hee haw?” he whispered to the darkness. “Hee Haw?” it echoed back. He was alone. Curling himself into a tight ball, he fell into a deep and troubled sleep.